

설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보다 0.7% 하락

농식품유통공사 “전통시장 27만9000원이 대형유통업체 34만3000원보다 18.7% 저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963원으로 지난해(31만3004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3주 앞둔 1월 23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8835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1% 하

락한 3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쇠고기(우둔, 양지)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전체 비용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설 대비 정부 할인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정부의 농축

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효과로 대형유통업체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농수축산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투입하는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1983년부터 농수산물 가격정보를 전국단위로 매일 조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지난해 조사표본 확대 개편, 조사기준 개선 등 공사가 가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차림비용의 상세정보는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이기성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백미 5백만원 상당(180포)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설 명절 맞이 사랑나눔 ‘훈훈’

새농민회 전북도회, 전북자치도에 사랑의 쌀 기탁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회장 이기성)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기탁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성 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 임인 전북농협 부본부장, 새농민회 도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미 500만원 상당(180포)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기성 회장은 “폭설과 한파 등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겨울을 보

내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농민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새농민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 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수 농업인에게 농협이 수여하는 새농민상(像)을 수상한 선도농업인 조직으로 1966년부터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도내에는 591쌍의 부부 농업인이 지역농업발전과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 운용전문가 24명 모집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인력 채용... 내달 6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5개 분야로, 직급별로 책임운영역(8명), 전임운영역(16명) 등 24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이달 중으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직 채용은 △서류전형 △실

무면접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나이·성별·가족 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 조사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이 이뤄진다. 지원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방문·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기금투자 다변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4일 겨울철 정수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정읍 산성정수장을 방문했다.

동진 농어촌공, 올해 공사현장 재해예방 안전관리 주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24일 지사 회의실에서 공사현장 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청사 및 농업기반시설 등 업장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고자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동진지사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안전보건협의체 간담회 날로 지정하고 공사와 공사현장과의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 올 한해 안전사고 없는 무사고 현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하인호 동진지사는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각 사업 현장에서 공사 감독과 서로 소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락노데 기자

전북 1월 소비자심리지수 96.5...전달 대비 1.4p 상승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치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96.5로 전월보다 1.4p 상승했으나 전국지수 101.6에는 미치지 못했다. CCSI는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구성

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1)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주요 지수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

(87→88), 생활형편전망(90→91), 가계수입전망(94→97)은 전월보다 모두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73→73)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소비지출전망(107→106)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항목별로는 여행비, 의료·보건비, 교양·오락·문화비 등이 상승한 반면 외식비, 주거비 부문은 하락세를 보였다. /뉴시스

‘노지 발작물 생육 정보 공개’

농진청, 양파·마늘·밀, 콩 등 6개 노지 작목 생육·재배 정보 개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 분야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노지 발작물의 생육과 재배 정보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품목은 양파, 마늘, 밀, 콩, 고추, 배추(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6개 노지 작목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전국 569농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이달 15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항목은 식물의 키, 잎의 수, 구의 높이, 구의 지름, 수확 과수, 개화기 등 생육 정보와 면적, 품종, 정식일자, 수확 일자, 수확량 등 재배 정보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개방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책임관 협의회에서 개방 내용을 심의했다. /김옥기 기자

올해 1월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치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뒤 공식 개방하게 됐다. 이번 노지 발작물 정보 개방으로 농가 입장에서 다른 농가와의 생육 정보를 비교해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시설 작목의 환경, 생육, 수확량 정보를 2022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모형을 개발해 실제 농가에 적용한 결과, 완숙 토마토 수확량이 13.7% 증가해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강석원 스마트농업팀장은 “정보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